



QUAD

서울문화재단 대학로극장

“여기에서 저쪽으로 가려고 했다”

공연기간 | 4.10(목) - 4.20(일)

공연시간 | 평일 19:30 | 토 일 15:00 ※ 월 공연 없음

공연장소 | 대학로극장 쿼드

티켓가격 | 전석 5만원

관람시간 | 약 110분 ※ 인터미션 없음

관람연령 | 만 7세 이상

무대형태 | 양방향 무대 | 지정석

공연예매 | 대학로극장 쿼드
인터파크 티켓

문의 | 1577-0369

국내

음악

의상

영상

인테리어

LOG & THEATER

서

민

사진 작가 우희는 갤러리 전시를 초청받아 베를린에 가기 위해,
경유지 ‘월마 국제 공항’에 도착했다.

캐리어를 찾지 못해 공항에 발이 묶인 우희는
자신과 같은 신세의 전직 배우 태조를 만난다.

빈 컨베이어 벨트 앞에 짐을 기다리던 둘은 책 ‘베를리너’를 읽게 되고
먼, 그리고 가까운 과거의 기록과 기억들이 뒤섞인다.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는 계속 전투가 벌어지고,
고작 한 발치 거리의 소란 속에서 삶은 더욱 선명해진다.



티저 영상 보기



연출 | 김재엽

<세일즈맨의 죽음> <최후의 분대장: 제1부 조선의용군> <케이멘즈 캡소디> <자본3:플랫폼과 데이터>
<자본2:어디에나 어디에도> <알리바이연대기> <깐들이와 친구들>

연극 <베를리너>를 꿈꾸며

지금 여러분 앞에 여기에서 저기로 혹은 저쪽에서
이쪽으로 움직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벽에
가로막힌 채 철망에 둘러싸인 채 살기 위해 경계를
넘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벽이 있습니다. 그곳에
창을 내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창을 열고 벽 너머
사람들에게 인사를 나누려는 이는 아마 향기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수록 자유를 찾고 싶은
마음은 강해집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경계를
허물고 나와 당신 사이의 작은 창문을 통해 정답게
마주보며 인사를 건네게 만듭니다.

과거와 현재 사이에도 벽이 있습니다. 역사와
현실 사이에도 벽이 있습니다. 죽음과 삶 사이에도
벽이 있습니다. 위로받는 사람과 위로하는 사람
사이에도 벽이 있습니다.

나를 지키는 것과 너를 이해하는 것 사이에도 벽은
있지만, 틈도 있습니다. 나와 너 사이를 연결하는
극장이라는 작은 틈도 있습니다. 무대와 객석
사이를 건너려는 우리들이 있습니다. <베를리너>는
모든 경계를 넘고 싶어 하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극장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극장은 관념 속에 존재하는 세계를
감각으로 체험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극장은
나에게서 너에게로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극장은 사라지지만 사라지지 않는 세계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지난 겨울 역사와 현실 사이의 장벽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도 객석을 찾아주시는 관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출연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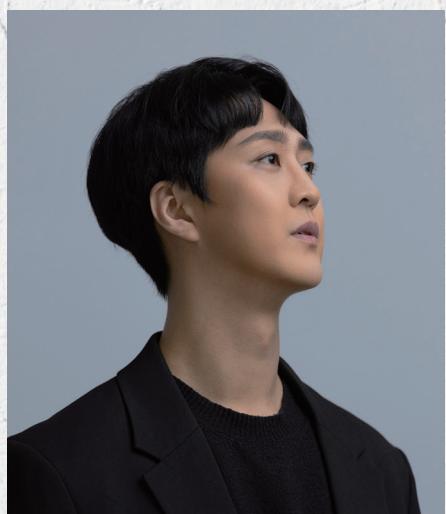


우희 | 권율아

<뜨거운여름> <나자닌을 위한 인터뷰> <겁괴기담>
<말괄량이? 길들이기> <자본2 : 어디에나 어디에도>

태조 | 최호영

<애도의 방식> <카르타고> <소년대로>
<라이더-On the rader> <편입생>



잉그리드 | 박수진

<실수하고 살 수도> <그로토프스키 트레이닝>
<사월의 사원> <당선자 없음> <우리는 농담이 (아니)야>

클라우스 | 김세환

<빵야> <케이맨즈 랩소디> <비Bea>
<스웨트> <엔젤스 인 아메리카>

출연진



버스커 | 이후정

<은의 혀> <스카풀> <배심원들>
<관객모독> <체홉 선생님 미안합니다만>

해석 | 양동탁

<더 파더> <빛의 제국> <반신>
<아이리스 PC방> <소설가 구보씨의 1일>



인터뷰 영상 보기

유리 | 박희정

<케이맨즈랩소디> <테디대디퀸> <템플>
<갈매기> <안톤 체홉 4대희곡 번안 프로젝트>

베를리너 무대를 생각하며

무대에 있는 조각들은 벽을 쌓기위한 재료이자, 그것이 무너져 내린 흔적이다.

이 조각들은 마치 아이들의 장난감 우드블럭처럼 생겼다.

클라우스가 장벽을 넘을 때 불편하게 매고 있던 가방 속 가득 담겨진 야기에게 줄 장난감선물 같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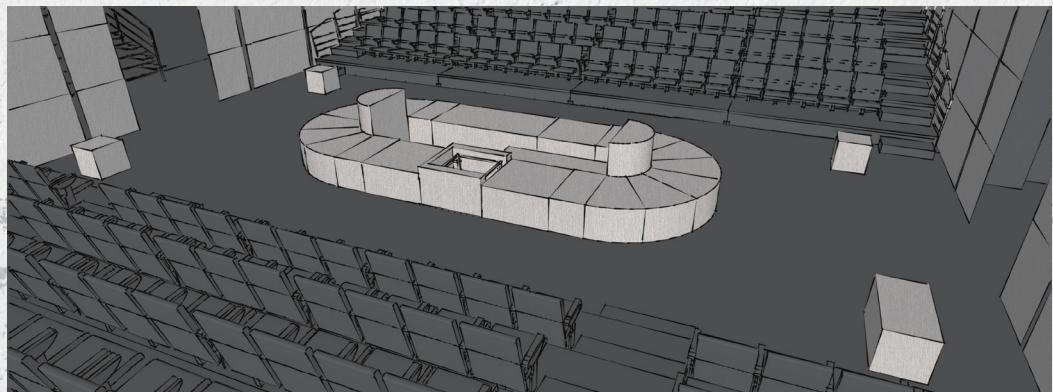
이것들은 공항에서 짐을 찾는 곳의 컨베이어벨트같이 놓여 있다.

극중 사건으로 인해 멈추어버린 컨베이어벨트처럼

아픈 기억들과 역사적 사건들은 그 자리에 멈춰서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누구나 지키고 싶은 것들이 있다.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더욱 소중하다.

거칠고 두꺼운 벽이 앞을 막아서도 결국은 그 너머의 소중한 것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이 곡은 단순히 하나의 도시나 지역을 넘어서, 전 세계 전쟁과 갈등의 상처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나라들을 애도하는 마음으로 작사, 작곡되었습니다. 여전히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상처와 아픔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베를리너를 작업하며 전쟁이 없는 나라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평화와 자유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가사와 음악을 통하여 관객분들께 폭풍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인간의 강인함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로는 평화와 사랑의 힘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To be Berliner

On the streets of Berlin, a dream is born, A voice a far, in the cold of the dawn.
 With echoes of wars, I sing of a world. To rise, to dreams, to be, we seek it, hearts open wide,
 A gain, the love, to feel From the ashes, we shine, to say, Berliner
 From dust we a rise, will stand next to you Sing for the dream to day,
 Sing for the hope, we rise from the ground Berliner Sing for the dream to day,
 Sing for the hope, we rise from the ground Berliner Dreams of tomorrow where love lights the way,
 a world built on hope, Where we're free to say.
 In the face of the storm, we'll rise a love together we stand, united in love.
 To rise, to dreams, to be, we seek it, hearts open wide, A gain, the love, to feel
 To be, to be, together we'll rise, together we'll care to be Berliner.

베를린의 거리에서, 꿈이 태어난다. 멀리서 들리는 목소리, 새벽의 추위 속에서.
 전쟁의 흔적 속에서, 나는 세상에 대해 노래한다. 우리는 일어나고, 꿈을 꾸고, 존재하려고 한다. 마음을 열고 찾는다.
 사랑을 얻고, 느끼기를. 재에서 우리는 빛나며, 베를리너라고 말하며.
 먼지 속에서 우리는 일어나, 너와 함께 서겠다. 오늘의 꿈을 위해 노래하자.
 희망을 위해, 우리는 땅에서 일어나 베를리너가 된다. 오늘의 꿈을 위해 노래하자.
 희망을 위해, 우리는 땅에서 일어나 베를리너가 된다.
 내일의 꿈은 사랑이 길을 밝히는 곳, 희망으로 세운 세상,
 우리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곳.
 폭풍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안고 일어설 것이다. 함께 우리는 사랑으로 단결한다.
 우리는 일어나고, 꿈을 꾸고, 존재하려고 한다. 마음을 열고 찾는다. 사랑을 얻고, 느끼기를.
 우리는 존재하기 위해, 함께 일어나고, 함께 베를리너로서 살아가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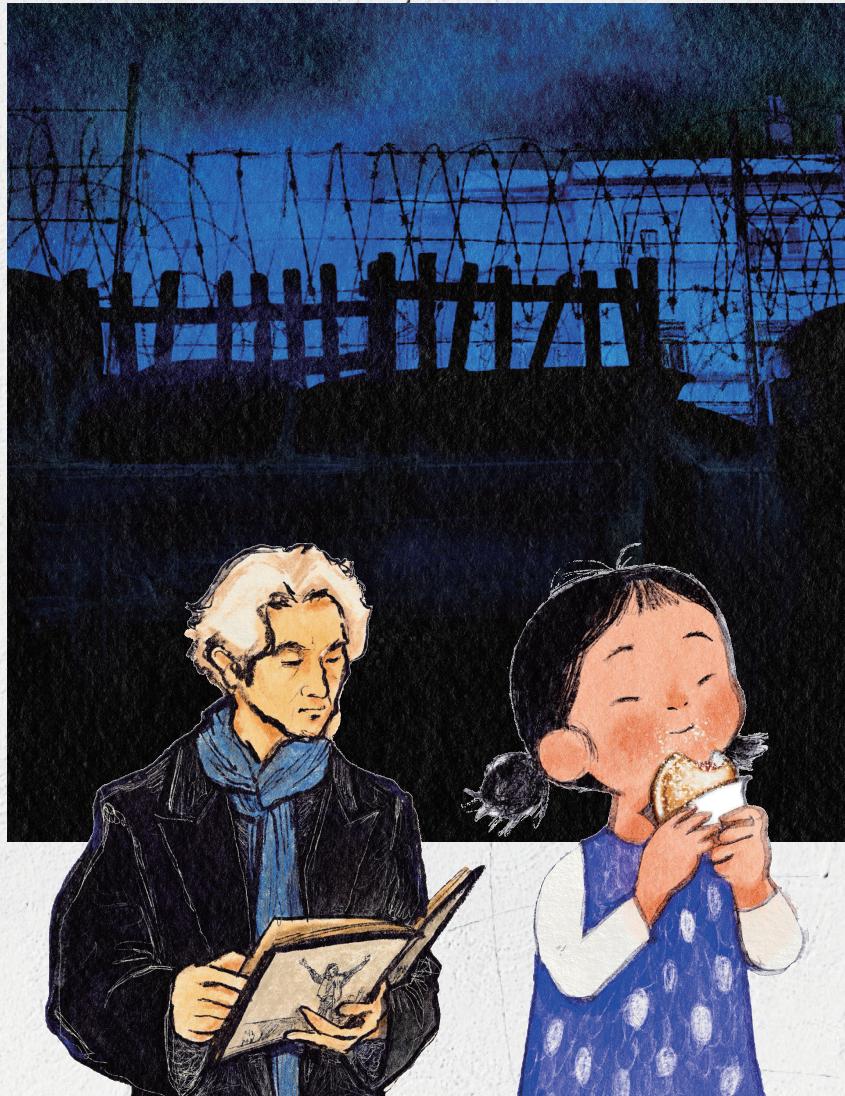
찰나에 머문 사진 속 그때의 그들, 기억 저편에 남은 그들의 모습, 그리고 스쳐간 순간들
그 표정 하나하나가 마음속에 겹쳐집니다.

때론 아프고, 때론 눈물 났지만… 그 모든 순간은 결국, 사랑이었고 평화였으며 자유였습니다

모든 장면마다, 그들의 의상이 하나의 언어가 되어 각자의 색,
그리고 서로의 결 속에 아름답게 녹아들길 바랐습니다.



동화책의 삽화나 일러스트화를 통한 이미지들은 보통 그 대상을 실사로 보는 것에 비해 거리감이 느껴지기 쉽습니다. 처음 이 이미지들을 접한 관객들이 동화와 같은 이미지들을 보며 남의 일, 나와는 먼 일처럼 느꼈다가도, 우리 작품을 관극하며 이런 일들이 누군가에겐 역사이거나 일상이라는 점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작품에 참여했습니다.



인류부이

드라마리그 | 김은성

[베를리너]로 데뷔하는, 이실론 작가를 소개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이후로 20년 가까이 소설을 써오던 이실론은

베를린 장벽 기념관에서 어린아이의 얼굴과 마주친다.

15개월을 살다 장벽에서 희생된 '홀거'에게 달콤한 도넛을 먹이고 싶은 마음을 담아 [베를리너]를 쓴다.

자기가 쓴 대사가 배우의 입을 통해 들리는 황홀함을 잊지 못해 극작가로 전향한,

그의 첫 번째 장막 희곡이 제1회 서울희곡상 수상작 무대로 쿼드에서 초연된다.

공연 20일 전, 장충동 연습실 앞에 있는 카페 리옹에서 이실론 작가를 만났다.

인류부이

작가 | 이실론

꾸준히 쓰는 작가가 되고 싶어요. 내내 쓰는 작가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관심 있는 보편적 문제에 애정이 많습니다.

이미 많이 만들어졌던 소재나 주제라고 할지라도

누군가는 또 계속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성이 특별하거나 신선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꼭 해야 하는 말을 하는 작가가 되고 싶어요.

‘인류가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이야기’

Q.

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초연을 앞둔 기분이 어떠세요?

아직 실감이 안 납니다. 객석에 관객들과 함께 앉아 있어야 실감이 날 것 같습니다. 대본을 쓴 이후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나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작년 가을로 예정됐던 공연이 미뤄지기도 했었고 수정 작업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막상 공연이라는 현실이 닥쳐오니 정말 실감이 안 납니다. 정말 공연 올라가는 것 맞죠?

Q.

이번 작품이 데뷔작입니다. 본인이 쓴 대본이 공연으로 올라가는 상상을 해보신 적이 많으실 텐데, 뭐가 가장 기대되나요?

제가 쓴 대사를 배우들이 말하는 상상을 하면 가슴이 뛰었습니다.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대사가 어떤 배우를 만나게 될까? 그 배우는 이 대사를 어떻게 말할까? 또 그 말은 관객들에게 어떻게 들릴까? 그런 상상을 하다 보면 가슴이 너무 뛰었습니다. 돌아보니까 대본을 쓸 힘이 바로 거기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Q.

극작가가 되겠다는 꿈은 언제부터 갖게 되셨어요?

2022년 연말입니다. ‘나, 희곡을 써야겠다.’ 마음먹은 날이 있습니다. 연극을 공부하는 친구가 학교에서 작은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너무 안 풀리는 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보면 어때? 하고, 무심코 떠오르는 대사를 딱 줄 들려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 공연을 보러 갔는데, 제가 쓴 것보다 훨씬 더

풍부한 감정을 담아서 표현하는 배우를 보면서 ‘만약에 내가 대본 전체를 다 썼다면, 공연 내내 내가 쓴 대사를 듣고 있다면 얼마나 큰 전율이 올까?’ 처음으로 희곡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핸드폰 속에 그날의 일기가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2022년 12월 3일입니다. 다시 보니 벽차오르는 ‘마음보다는 ‘이거, 큰일 났다!’ 느낌이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Q.

왜 큰일 났다는 느낌이 들었을까요?

희곡과 연극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었으니까요. 물론 연극 보러 다니는 일을 아주 좋아했었고, 친구가 연출한 공연을 보면서 나도 해보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했었지만 작심하고 희곡을 쓰겠다고 마음을 먹게 됐으니 겁부터 난 거죠. 초등학생 때부터 소설 쓰는 일에 몰두해 오다가 희곡 쓰기로 방향을 트는 게 맞는지 고민도 있었고요.

Q.

초등학생 때부터 소설을 쓰셨다고요?

네. 지금 돌아보면 부끄러운 작품들이지만, 글쓰기에 뚝 빠져서 지냈었어요. 특히 고등학생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소설을 썼던 기억이 생생해요. 초등학생이 고등학생의 일상을 상상하면서 미래를 미리 살아봤던 거죠. 어려서부터 소설가가 되고 싶었어요. 꿈이 아주 명확했어요. 예고와 예대에서 줄곧 문예창작을 전공하며 서른 넘어서까지 소설을 썼습니다.

Q.

10대와 20대 내내 소설을 쓰면서 보내셨는데, 어떤 소설들을 쓰셨는지 궁금하네요.

일인칭 시점의 소설을 많이 썼어요. 갑자기 어떤 일을 겪게 된 사람의 입장이 되어 이야기 만들기를 좋아했어요. '그 사람은 그 순간에 놓이게 될 때 어떤 선택을 할까?' 그 상상에서 소설을 출발할 때가 많았어요. 슬프게도 아직 발표작은 없지만, 아끼는 작품이 하나 있어요. 연극배우가 주인공인 소설입니다. 공연이 시작되는 순간, 무대 위에 불이 켜지는 순간, 미리 약속된 모든 세팅이 엉망이 되어 있는 무대 위에서 오로지 혼자 힘으로 공연을 끌고 가게 되는 배우의 이야기예요. 조명도 장치도 엉망이고, 다른 배우들도 다 사라진 무대에서 혼자서 커튼콜까지 완벽하게 해내는 배우의 즉흥극을 담아낸 작품이었어요. 그 외에도 짧은 소설들을 많이 썼는데, 완성도를 떠나서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글 쓰는 일이 참 즐겁습니다.

Q.

글 쓰는 일을 왜 그렇게 좋아하게 되셨을까요?

항상 뭔가 써놓아야 한다는 강박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비밀입니다. '내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느끼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게 저는 무섭습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 좋은 것은 좋은 대로, 좋지 않은 것은 좋지 않은 대로 기억하려고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쓰면, 써두면, 마음이 편안해졌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 알 것도 같고, 모르겠는, 그 모호함 그대로 일단은 그냥 두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문학하고는 헤어질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고쳐서 다시 쓸 수도 있잖아요?

Q.

비밀이 뭔지 궁금하지만, 언젠가 기회가 생기길 바라면서 오늘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년 가까이 소설을 쓰시다가 희곡을 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어떤 일부부터 하셨나요?

극작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학교 과제로 일주일에 한 편씩 단막극을 쓴다는 사실을 접하게 됐는데 자극이 됐어요. 저도 일주일에 한 편 짧은 희곡을 써보는 것을 목표로 습작을 했어요. 일단 100일 동안 해보자는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썼습니다. 그리고 연극 관람 후에는 평이 담긴 '관극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희곡집도 많이 읽었고, 연극 관련한 이런저런 책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는 동안 희곡 쓰는 매력에 더 빠져들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소설과 병행하려는 마음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희곡 쓰기에 집중하기로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Q.

어떤 즐거움을 느끼셔서 희곡 쓰기에 집중하기로 하셨을까요?

대사 쓰는 일이 재밌습니다. 소설 쓸 때보다 희곡을 쓸 때 대사를 훨씬 많이 쓰게 되는데 인물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쓸 때 신나는 느낌이 좋습니다. 제가 집에서 세 자매 중 둘째 거든요? 자매들끼리 수다 떠는 일을 참 좋아하는데 희곡의 대사를 쓰고 있으면 언니, 동생이랑 수다 떠는 것처럼 재미를 느낍니다.

Q.

[베를리너]는 언제 어떻게 구상을 시작하셨어요?

2015년에 독일 뉘른베르크에 간 적이 있었어요. 베이비시터를 하면서 어학원에 다니고 이런저런

공부도 하면서 1년 정도 지내고 돌아왔었어요. 그때의 기억이 좋았는지 독일에 다시 가고 싶다는 생각을 이후로도 계속했었어요. 특히 제가 돌봐줬던 아이 이름이 요나스였는데, 요나스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2019년에 다시 독일에 가서 3개월 정도 머물다 왔어요. 베를린에 가는 길에 베이징 공항을 경유하게 됐어요. 한밤중에 사람이 거의 없는 공항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됐어요. 상점들도 다 문을 닫고 와이파이도 잘 안 터지고, 짐 검사를 다시 하는 상황도 생기고, 뜻밖의 일을 많이 경험하게 됐는데 낯선 곳에서 겪은 낯선 일을 꼼꼼하게 기록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베를린에 도착한 다음에 주로 머물렀던 곳이 '마우어파크' 근처였어요.

Q.

'마우어파크'라면 [베를리너]에서 태조랑 유리가 데이트하는 장소네요.

베이징 공항에서의 낯선 경험과 베를린에서 보낸 시간이 [베를리너] 작품 구상에 영향을 줬던 거군요? 네. 특히 베를린 장벽 희생자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홀거' 사진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어느 날 산책 겸 베를린 장벽 기념관을 가게 됐어요. 영상 전시물을 보게 됐는데 눈앞에 지나간 여러 이미지 중에 어떤 아기 얼굴을 보게 됐는데 이후로 '그 아이는 누구지?' 아이의 얼굴이 불쑥불쑥 떠오르곤 했어요. 한국으로 돌아오기 직전에 엽서를 사려고 기념관에 다시 가게 됐어요. 그날 거기서 또 그 아이의 얼굴과 마주하게 됐어요. 이번에는 아이가 누구인지, 찾아봤어요. 그 아이 '홀거'가 베를린 장벽의 가장 어린 희생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Q.

그때부터 [베를리너]를 작품으로 쓰시려고 했던 거군요?

아니요. '홀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찾아보기는 했었지 작품으로 쓸 생각까지는 없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동안은 잊고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침대맡 선반에 놓아둔 베를린 장벽 조각으로 만든 기념품을 명하니 보고 있는데, 불쑥 '이거 진짜일까? 가짜 아닐까? 30년이 훌쩍 지났는데!'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베를리너] 구상은 그 생각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베를린에 관한 이런저런 생각이 꼬리를 물다가 '독일에는 베를린 장벽을 다룬 작품들이 많겠지?' '한국인이 베를린 장벽에 관한 이야기를 쓰면 어떨까?' 생각까지 하게 됐던 거예요. 뭔가 확실하게 정리된 줄거리나 메시지는 없었어요. 장벽의 이미지에서 막연하게 출발했습니다.

Q.

베를린 장벽을 소재로 대본을 써야겠다고 마음먹고 어떤 작업부터 시작했나요?

우선 베를린에 있을 때 찍었던 사진들을 다시 꼼꼼하게 봤습니다. 일기들과 메모들도 살펴봤습니다. 베를린 장벽의 이야기를 쓸 준비가 되어 있는지, 베를린 장벽이라는 역사적 사실과 내가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솔직하게 대면해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주제, 그러니까 작품을 관통하는 한 줄의 멋있는 메시지가 찾아지지 않아서 힘들었습니다. 새롭고 근사한 메시지를 찾느라 용쓰지 말고 솔직하게 '나는 베를린 장벽을 앞에 두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지?' 이 질문을 스스로 던지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베를린 장벽 앞에 서 있는 어린 '홀거'를 떠올리면서

작품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훌거 앞에 어떤 미래가 놓여 있기를 바라지?
그래, 훌거한테 뭐든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정리되고 나니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훌거의
부모인 클라우스와 잉그리드 부부가 떠올랐고,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으려고 했던 부부의 서사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Q.

[베를리너]는 장벽 앞의 클라우스 잉그리드 부부의
과거 이야기와 그 이야기를 접하는 우희와 태조의
만남으로 전개되는 작품입니다. 우희와 태조는
어떻게 구상된 인물들인가요?

클라우스 부부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나는
어디에서 뭘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베이징 공항에 있던 제가 떠올랐습니다. 우희는
어느 날 불쑥 낯선 경유지에 놓이게 된 제
경험에서 비롯된 캐릭터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한껏 당연하게 누려오면서 살아온 인물을
자유가 위협받는 시공간에 넣어보고 싶었습니다.
‘월마 공항’의 내전 상황이 설계된 이유입니다.
자유를 마음껏 만끽하고 살던 우희가 월마
공항에서 태조를 만나 유리의 삶을 알게 되고,
클라우스 부부 이야기를 책으로 접하게 되면서
자신이 누리고 있던 자유가 당연하게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과정을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나아가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신의 ‘운’을 의미 있는 곳에 쓰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인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태조는 우희가 처음 겪고 있는 내외적 상황들을

이미 많이 겪어본 인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테러로 잃고 굉장히 무기력해진 상태에서
등장합니다. 스스로 어떤 것에서도 위로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던 그가 우희를 만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기운을 회복하게 됩니다. 우희와의
대화, 클라우스 부부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조금이나마 회복할 기력을 찾게 되는데, 왜
조금이나마 찾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잘 모르겠다기보다는, 그 지점을 말로 표현하기가
참 힘든데, 자기 자신이 아직 누구한테는
조금이나마 힘이 돼줄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간과 세상에 대한 믿음을 잃었던
태조한테 아주 작은 변화를, 희망을,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대본으로 쓸 때도 어려웠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 변화가
현실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기에 태조에게
미안한 마음이 자꾸 듭니다. 아픈 스토리를
만들어서 상처를 겪게 만들고, 또 그 아픔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다고 쓰는, 작가의 일이
아직은 좀 어색합니다. 그 어색함이 태조 캐릭터를
모호하게 만들 때가 많은 것 같아 태조 역을 맡은
배우에게도, 관객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Q.

유리와 버스커는 대본을 확장 수정하는 과정에서
새로 등장한 인물입니다. 본래 대본에서는 우희와
태조의 대화 속에 등장하는 이름들이었는데,
등장인물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느낌이 어떠세요?
연출가가 우희와 태조의 인물성을 더 뚜렷하게
보여주려면 유리와 버스커도 등장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납득이 됐습니다. 출연
배우들이 정해진 상태에서 쓸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 역할을 어떤 배우가 할지 알고 쓰게 됐는데 이런 경험이 훈치 않다고 들었습니다. 아주 재밌는 과정이었습니다. 배우들에게 맞춤옷을 입히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즐겁게 쓸 수 있었습니다. 본래 의도했던 것보다 등장 분량도 많아졌는데 극이 전보다 입체적으로 풍성해진 것 같아서 만족스럽습니다.

Q.

[베를리너]는 2023년 제1회 서울희곡상 수상작입니다. 수상 소식을 듣고 어떠셨어요?
초고를 쓴 다음에 대본 공모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직장인 연극 단체에서 공연을 올릴 계획으로 썼던 대본을 응모하게 됐습니다. 기대는 했지만, 정말로 수상작이 될 거라는 생각까지는 못 했습니다. 수상 소식 전화를 받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상금도 상금이지만, 퀴드에서 공연할 수 있다는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Q.

수상 이후 지금까지 시간을 돌아보면 어떠세요?
대본을 정말 많이 고치셨잖아요?
5고 쓸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웃음)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극장에 적합한 공연 방식을 찾는 과정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수상작 그대로 공연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었기에 수정은 불가피하다는 다짐을 하고 공연 작업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수정하는 시간과 과정이 너무 길었고 어려웠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대본을 많이 바꾸게 되어서 조금 지친 감도 있습니다.

Q.

[베를리너] 초연은 연출가의 손을 거친 각색 대본으로 공연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작가로서 속상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속상함이 없다면 거짓말이죠. 서너 번째 작품이라면 달랐을까요? 솔직히 '첫 번째 작품인데, 상도 받은 작품인데, 그냥 그대로 좀 옮려주면 안 되나?'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연출가의 각색 대본으로 공연하게 된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조금 슬펐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침을 겪으면서 배우는 것도 많습니다. 연극은 혼자 만드는 작업이 아니잖아요? 극장이라는 현실, 연출가와 배우의 방향성, 제작진의 의도, 그 밖에도 수많은 변수 속에서 연극 작업이라는 어려운 함수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나와 나의 대본을 객관화해서 수용하고 절충하되 뜻하는 게 있으면 포기하지 않는 노력을 끝까지 하는 중입니다. 장차 저에게 큰 경험이 되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Q.

[베를리너] 연습 과정을 겪으면서 극작가로서 어떤 점을 가장 많이 느끼셨나요? 향후 작업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대본이 문학성은 강한데, 연극성이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은 극적인 사건보다 인물의 내적 세계를 그려내는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극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작품, 외향적으로 성격을 표출하는 인물들이 등장하는 작품도 써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의 내밀한 마음을 보여주는 글쓰기를 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인물의 내밀한 마음을 표현하는 대사와 장면이 정적으로 멈춰

있는 것으로 보이기 쉽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인물의 내밀한 마음을 보다 동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내고 싶습니다. 극작가로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극복하고 싶습니다.

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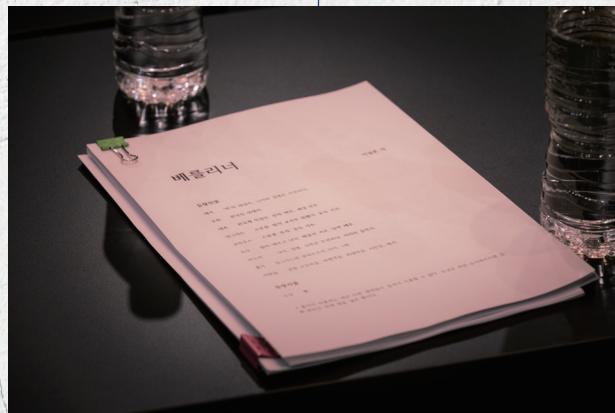
[베를리너]를 이을 다음 작품이 기대됩니다. 살짝 소개해 주신다면?

한강 밤섬에 사람이 살았던 시절을 배경으로 이야기를 만들고 있어요. 폭파되기 전에 밤섬에 살았던 한 가족의 삶을 생생하게 담아내려고 애쓰고 있어요. 현재와 과거를 오가는 구성으로 한강과 한국인의 삶을 그려보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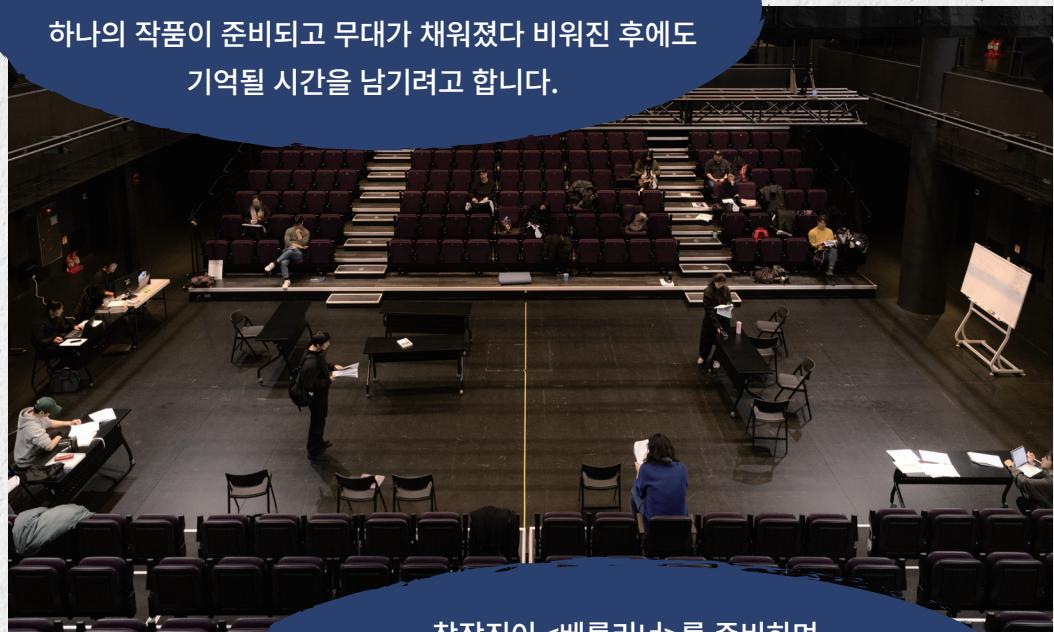
Q.

[베를리너]를 보러오신 관객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작가가 되어 객석에 관객분들과 함께 앉아 있는 상상을 많이 했었어요. 옆에 함께 앉아 계셔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관객의 호흡'이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베를리너]를 보시고, 극장에서 연극을 함께 볼 수 있는 평화와 안전, 자유로움에 대해서, 또 연극 속에서 펼쳐지는 '부자유로운' 감각에 대해서도 음미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그것이 말만큼 쉬운 일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부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극장이라는 물리적 공간으로 연결된
창작자와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기 위해 만든 페이지입니다.
하나의 작품이 준비되고 무대가 채워졌다 비워진 후에도
기억될 시간을 남기려고 합니다.



창작진이 <베를리너>를 준비하며
쿼드에 쌓아 온 기록 중 관객으로 극장을 찾아와주신 분들과도
나누고 싶은 조각들을 골라 담아보았습니다.

통상적으로 불리는 작품노트 혹은
제작일지와는 다른 쓰임이고자
기획팀의 시선에서 주석을 단 기록임을
먼저 밝혀둡니다.

인물들의 순간들이 <베를리너>의 페이지로 관객과 만난 것처럼
쿼드의 순간들도 극장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길
바라봅니다.

2024년 12월,

첫 리딩 기록

“

1) 수면에 일렁이는 수백 개의 물보라에요.
비가 내려도 수면이 그렇게 일렁이지는 않을 걸요.
그날 난 총소리가 빗발친다는 비유를 이해했어요.

”

김재엽

이 표현이 너무 좋아서, 작가님에게 작품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말 같다고 했었다. 수면이 일렁이는 물보라는 멀리서 보면 예쁘고 아름다운데, 그게 누군가 한 명 한 명이고, 그 누군가가 총을 맞고 있다는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

권슬아

잉그리드와 클라우스의 이야기가 너무 평화롭고 아름다워서 아팠다. 거칠고, 폭력적인 전쟁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다른 영상이나 글도 많은데, 이 작품에서는 2) 누구나 꿈꾸는 사랑과 평화 같은 장면들이 오히려 더 아프게 느껴졌다.

- 1) 첫 리딩에서 언급되었던 우희의 대사로, 티저 홍보물에 일부를 인용하였다.
멀리서 보면 예쁘고 아름답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아프고 슬픈 것들이 숨겨져 있다는 의미가 <베를리너>의 인물들이 우연히 만나 밝고 따뜻한 인사를 나누다가 서로 숨겨진 아픔을 발견하게 되는 과정을 문학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라 연출 코멘트와 함께 기록해두었다.
- 2) <베를리너>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순간을 담아 누구도 알지 못했던, 혹은 잊고 있었던 아픔을 위로하는 이야기로 관객에게 다가갈 수 있길 기대하며 첫 리딩에서 우희를 맡은 권슬아 배우의 소감을 기록해두었다.

2025년 1월, 2월 그리고 3월의

연습 기록

양동탁

관객이 공연을 보았을 때, 3) 자신만의 기억들이 건드려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우희와 태조, 각자의 과거, 잉그리드와 클라우스, 이 세 가지 층위를 가진 이야기의 연결고리도 그와 같이 모호하고 간접적으로 건드려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모호하고 간접적으로 어느 기억을 건드리는 지점이 이 작품의 좋은 점이라고 생각했다.

김재엽

연출로서 장면 사이의 연결에서 4) 서로가 관계를 형성하고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중이다. 예를 들면 어떤 장면의 브릿지는 버스커가 공연을 하고, 어떤 장면의 브릿지에서는 유리가 단편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연기를 하고, 어떤 장면에서는 해석이 어떤 문장을 반복하거나, 낭독하거나, 걷는, 레이어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이미지들로 이들이 사실 공존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다. 텍스트에 존재하는 요소를 이 공간에 효과적으로 배치하면서 레이어를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을 디자이너와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

- 3) 작품이 관객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이 시대의 담론이 어떻게 작품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을지는 창작진이 정말 치열하게 고민했던 부분이다. 과거와 현재, 가상과 현실의 시공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지금 우리의 상황과 너무 닮기도, 너무 다르기도 해서 작품 속의 이야기들이 지금의 우리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 중 해석을 맡은 양동탁 배우의 이야기 일부를 기록해두었다.
- 4) 관객들이 제목에서 받을 이미지와 이 작품 고유의 느낌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춰 방향성을 잡을 수 있을지도 기획팀을 포함해 창작진의 주요한 고민 중 하나였다. 연습 과정에서 이 작품의 제목인 '베를리너'만 보면 동과 서로 나누었던 이분법적인 장벽을 떠올리기 쉬운데, 이 작품은 그런 물리적 장벽을 넘는 것보다, 어떤 선택들을 거치며 각 인물들이 각자 삶의 경계를 넘어가는 과정 그 자체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 쿼드에서 교차되는 창작진과 관객의 시간도 그렇게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관계맺을 수 있길 바라며 김재엽 연출의 이야기에 주석을 달아 기록해 두었다.

사진기록



사진기록



만든 사람들

작		이실론	음향디자이너	빈동준	서울문화재단	
각색·연출	김재엽	음향 오퍼레이터	오연주		대표이사	송형종
드라마터그	김은성	음향 RF엔지니어	윤승환		예술창작본부 본부장	한지연
조연출	윤석현				대학로센터실 실장	장재환
무대감독	강지훈	영상디자이너	김성하(고양이등대 스튜디오)			
무대조감독	임성현	영상 오퍼레이터	정영민			
무대팀	신유찬	의상디자이너	이은경(EK)			
	양재범	의상 제작	EKCOSTUME(대표 이은경)		팀장	안미영
		의상디자인어시스턴트	최새봄		PD	이지은
무대·소품 디자이너	장호	의상팀	강소량			박혜원
무대·소품 제작	바리케이드					김은나
무대세트팀	곽노근	분장디자이너	이지연(MAKE228)			최영한
	김대현	분장어시스턴트	권아영			조성현
	김호준				AD	박소민
	주인철	출연진	권슬아 양동탁			유성일
조명디자이너	장재영		김세환 이후징		문화행정인턴	박경혜
조명 프로그래머·오퍼레이터	정채림		박수진 최호영		티켓매니저	차예민
조명팀	김재준		박희정		하우스매니저	정연성
	윤재이	사진	이강률			
	이상혁	홍보영상	삼인칭시점		팀장	이정욱
	이재문	그래픽디자인	인볼드		무대감독	강지훈
	이준수					이종훈
	이지우					이상원
작곡·음악감독	이나경	SONG LIST			조명감독	장재영
편곡	박민주	To be Berliner				오은정
연주	박민주 피아노	작사·작곡 이나경 편곡 박민주 연주 PIANO 박민주 GUITER 이정연 VOCAL 제이민			음향감독	빈동준
	이정연 기타	We are all Berliners				이동주
	제이민 ost vocal	작사·작곡 이후정 연주 이후정 버스킹에 엔드느 반칙				
		작사·작곡 이후정 연주 이후정				



발행처 서울문화재단 | 발행인 송형종 | 발행일 2025년 4월

본 프로그램북의 무단 전재를 금하며 내용의 일부를 가공하거나 인용할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서울문화재단 대학로극장 퀴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122 | www.quad.or.kr | 1577-0369

2025 대학로극장 퀴드 제작

베를리너 프로그램북

서울문화재단
미술관
미술관
미술관
미술관



QUA

서울문화재단 미술관